

中 ‘생산메카’ 텐진 찾은 JY... ‘시진핑 키드’와 협력 논의

〈천민열 텐진시 서기〉

이재용 회장 CDF 참석차 방중 삼성 계열사 거점 텐진시 찾아 현장 점검·임직원들과 간담회 美 압박 속 공급망 안정화 모색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이 오랜만에 중국 사업장을 방문해 중요성을 확인했다. 3년 만에 중국을 찾은 이 회장은 가장 먼저 삼성 계열사들의 생산 메카인 텐진시로 향했다.

이곳에는 삼성전기 MLCC·카메라모듈 생산 공장, 삼성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듈 생산 공장, 삼성SDI 스마트 기기·전기차 2차전지 생산 공장이 있다.

이 회장은 ‘시진핑 키드’로 불리는 천민열 텐진시 서기를 만나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해 비즈니스 리더들과 경영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졌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방중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삼성전기 텐진공장 MLCC 라인 점검

26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24일 중국 텐진에 있는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 곳은 차량용 전장(전자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 회장은 생산 공장을 점검하고 텐진 지역 계열사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4일 중국 텐진에 위치한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해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생산 공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 회장이 중국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3년여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방문을 하지 못하다가,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개발포럼(CDF)’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 이에 앞서 현지 사업장이 있는 텐진시를 찾아 천민열 텐진시 서기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텐진은 삼성전기 MLCC 카메라모듈 생산 공장, 삼성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OLED 모듈 생산 공장, 삼성SDI 2차전지 생산 기지가 있는 지역이다. 특히 삼성전기 텐진 MLCC 생산 라인은 글로벌 시장에 IT와 전장용 MLCC를 공급하는 주요 생산 거점이다. 2018년 설립했다.

MLCC는 전자 회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류 흐름을 조절하고 전자와 간섭을 막아주는 부품이다.

전자제품은 물론 자동차에도 1만개에서 2만개가 탑재될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 삼성전기는 ADAS와 ABS와 와이레인 등에 사용하는 다양한 전장용 MLCC를 생산한다.

이 회장은 2020년과 2022년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방문해 MLCC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선두에서 혁신을 이끌어 가자.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된다. 불확실성에 위축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자”고 말했다.

삼성전기는 앞으로도 부산 사업장을 첨단 MLCC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특화 지역으로, 텐진 공장은 전장용 MLCC 주력 생산 거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공장에 방문하기 전 삼성

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와 삼성SDI 등 텐진 지역 주재원과 중국 법인장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격려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왔던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국과 한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제약을 받을 때도, 텐진을 비롯한 중국 주재원과 임직원들의 공급망 차질 최소화에 주력해왔다.

◆ 텐진시 서기·글로벌 CEO와 협력 논의

이 회장은 글로벌 기업 CEO들과 함께 CDF에 참여해 글로벌 경영 현안과 미래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퀄컴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와 BMW 올리버 집세 회장 등 오피니

언 리더들과 함께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기 사업장 현장을 점검한 이후에는 천민열 텐진시 서기를 만났다. 세계에서는 ‘시진핑 키드’로 불리는 천 서기와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 서기는 저장성 출신으로 2002~2007년 저장성 당 서기를 지낸 시 주석의 눈에 들어 핵심 측근으로 성장했다. 2018년 인구 3000만이 넘는 대도시인 충칭시 당 서기로 발탁됐고, 지난해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뒤 텐진시 당 서기로 부임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양철 삼성전기 중국전략협력실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와 텐진시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 회장은 25~27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台)에서 개막한 ‘경제 회복 : 기회와 협력’을 주제로 ‘중국발전 고위급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발전포럼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 알버트 불라 화이자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 세계적인 기업 고위 인사 100여 명과 중국 중앙부처 지도급 인사, 국유 기업 및 금융기관 책임자, 국내외 저명 학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포럼은 2000년 창설됐으며,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중국발전연구기금이 주관하는 대외 경제 교류 플랫폼이다. 이 포럼이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것은 3년 만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프랜차이즈 노동법 준수 여부 단속

고용부, 가맹점 2500곳 현장점검 일한만큼 대가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노동자 임금을 때 먹거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불법 행위 적발 위해 올해부터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전국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점 등 청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고용노동부는 27~31일 전국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2500곳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와 함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 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활용해 가맹점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장은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키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고용부와 협업이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청년 고용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근로감독

을 실시한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76곳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억500만여원을 체불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64건도 적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다수가 기본적인 노무관리 관련 인식이 부족해 더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관내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찾아 관련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준수 등도 핵심 점검 대상이다.

이정환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통해 현장의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상반기 만기 앞둔 유동화증권 34조 ‘고비’

>> 1면 ‘제2금융권, 부동산PF...’서 계속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수록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PF대출의 상환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PF 비중이 많은 보험사, 증권사, 여전사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PF 익스포저 규모는 보험사가 38.1%(4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가 24.7%, 여전사가 23.6%, 저축은행이 9.2% 순이었다.

◆ 부동산 PF, 올 상반기가 고비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가

고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안정보고서를 보면 건설사 등이 올해 상반기까지 갚아야 할 유동화증권 만기는 34조원, 이 가운데 1분기에만 약 20조원이 몰려 있다.

신용평가사와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만기가 예정된 부동산 PF 가운데 약 30%는 담보없이 자금을 조달할 브릿지론으로 추정한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초기자금(땅 매입작업)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시행사가 주택개발을 위해 브릿지론을 받았지만, 부동산가치 하락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져 금융회사가 본PF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부실이 발생한다.

일손 부족에 대대적 인력 충원 예고

>> 1면 ‘야드에 꽂힌 선박...’서 계속

해의 선주사들이 현대중공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술력이다. 대형 선박의 경우 하루 연료비 1억원 가량 소요된다. 고 볼 때, 현대중공업은 연료비를 10~15% 절감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

◆호황 속 드리운 ‘인력난’...채용이 답이다

다만 이러한 수주 호황 속에서도 현대중공업은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일감은 넘치는데 일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조선업이 인력 문제가 봉착했다. 법무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도를 바꿔 인력 확보 나서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직시했다.

이어 “현재 HD현대 조선계열 3사(현

부동산업계관계자는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행사 상당수가 높은 금리를 감수해 서라도 투자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우 시공사와 금융회사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2019년 31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55조7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부동산 경기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회사들의 직접적인 타격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사업장은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사업장은 손실부담을 조정해, NPL시장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와 협력사에 외국인 노동자를 800명 정도 채용한 상태”라며 “(800명을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2800명까지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외국인 인력뿐만 아니라 내국인 채용도 이어갈 전망이다.

한 부회장은 이날 “올해 직영으로 200~300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앞으로 채용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말로 채용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양성운 기자 ysw@